=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=

조경란(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)

이 책의 고민의 지점과 이후의 과제
-동아시아 진보의 재구성, 중국진보의 재구성

1. 최근 중국 지식계에 대한 제 나름의 입장과 시각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한 것, 각파의 근원적인 자기회의와 자기성찰을 촉구한 책(비판적 지식인의 조건-?) --> 단순히 중국의 최근 각류파를 소개하고자 한 책이 아님.

2. 중국사회주의의 실패의 가장 핵심원인 - 민주의 부재(사회주의 혁명과 혁명 이후의 문제(혁명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제도로서의 사회주의) -->

1)재구성은 반성과 성찰이 있을 때 가능한 작업인데, 오히려 '중국모델론'은 혁명사상과 제도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성찰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
2)제3의 방안(이론화-체제론)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서가 나와야 함(본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이기도 함). 예)중국의 사민주의 연구-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과 이후의 사상자원의 여부 문제 - 30, 40, 50년대

3. 이 책이 중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라면 국가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지식인의 활동의 성격이 달라질 것임. 그렇다면 현재의 중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됨. 책에서 서술한대로 자본과 국가이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을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. 권력과 지식인의 관계, 감시의 역할? 참여해서 좋은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?

4. 중국의 지식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
-->송대이후 통치시스템 안에 들어간 士계급-왕조의 무한과 역사의 무한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해왔던 사계층의 전통이 얼마나 현재의 지식인에까지 각인되어 있는지, 그리고 근대 100년 사회주의 시기를 포함한 시기의 경험은 현재 중국의 지식인의 사유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, 유교적 사회주의적 아비투스의 문제를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